

‘박찬호 이어 최형우마저…’ KIA, 또 내부 FA 놓쳤다

삼성 9년 만에 복귀…2년 총액 26억 FA 계약

한승택 등 핵심 3명 누수…전력 약화 불가피

‘영구 결번 0순위’ 양현종 잡을지 팬들 관심

KIA타이거즈가 내부 FA 자원의 줄이탈로 신음하고 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와 포수 한승택에 이어 베테랑 최형우까지 잃게 되면서 전력난에 빠진 것.

▶관련기사 19면 삼성라이온즈는 3일 “최형우와 계약기간 2년,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 26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박찬호, 한승택에 이은 3번째 전력 누수다. 최형우의 팀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의 이탈이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형우는 2002년 삼성에 입단해 2004년까지 1군 경기에 단 6번만 출전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다. 7타수 2안타의 저조한 성적으로 2005년에는 방출의 아픔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2006년 창단한 경찰야구단 입단을 기점으로 그는 완벽히 달라졌다. 2008년 삼성에 재입단하며 그해 만 25세의 나이로 최고령 신인왕 타이틀을 따내는 등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삼성 왕조를 이끌었다.

이후 2017년 FA자격을 얻은 최형우는 리그 역대 최초로 100억 FA계약을 맺고 KIA유니폼을 입었다. 꾸준히 KIA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준 그는 2020년 12월 KIA와 3년 총액 47억원에 두 번째 FA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엔 KIA와 2년 22억원에 비FA 다년 계약을 했다.

특히 올 시즌에는 133경기에서 144안타 24홈런 86타점 타율 0.307 24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28의 맹활약을 펼쳤다. 또 KBO리그 최초 4400루타, 1700타점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는 3일 최형우와 계약기간 2년,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 26억원에 계약했다. 사진제공=삼성라이온즈

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령 400홈런, 2500안타 등 각종 통산 기록도 갈아치웠다.

최형우는 FA 시장이 열리기 전 원소속팀 KIA와 계약할 가능성이 커 보였으나 친정팀 삼성이 파격적인 대우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9년 만에 대구로 복

귀했다.

최형우가 떠나게 되면서 KIA는 극심한 전력 약화를 겪게 됐다.

최형우는 올 시즌 박찬호, 오선우, 위즈덤과 함께 유일하게 규정타석을 소화했다. 이 중 유일하게 3할 타율을 달성한 것

도 최형우다. 박찬호와 위즈덤이 빠진 상태에서 최형우마저 이탈하면 남은 건 올해 첫 폴타임을 소화한 오선우 뿐이다.

이미 KIA는 주축선수였던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 등 야수진의 연이은 부상 약재로 고비를 겪었다. 솔한 부상을 겪은 나성범과 김선빈의 전 경기 출전은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규정 타석을 소화한 베테랑들이 모두 빠진다면 팀 타선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올해 FA 시장에서 지갑을 굳게 닫은 KIA가 남은 기간 대체 자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운 외인 타자 영입과 아시아쿼터 정도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지난 2024시즌 통합 우승팀인 KIA는 내년 시즌 ‘윈나우’를 해야 할 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은 내부 FA 자원인 양현종과 조상우는 잡아야 한다.

KIA는 양현종 없이 원활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할 수 없다. 외국인 투수 2명을 제외한다면 이의리 정도가 상수다. 김도현은 팔꿈치 피로골절로 변수가 있다. 왼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토미존 수

술)을 받은 윤영철은 내년 시즌 복귀가 어렵다. 김태형, 황동하 정도가 내년 선발 경쟁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현종은 올 시즌 유일하게 부상 없이 선발을 뒤편던 선수다. 그는 11시즌 연속 150이닝과 100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살아있는 전설이기도 하다.

볼펜 조상우 역시 올 시즌 72경기 6승 6패 60이닝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기록했다. 팀 내 가장 많은 홀드 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책임졌다. 구위 저하로 시즌 중간 기록을 격진 했지만, 필승조로 꾸준히 등판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그가 이탈한다면 전상현, 성영탁, 정해영 등 기존 볼펜 자원들의 부하가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KIA가 남은 스토브리그 기간 어떤 행보를 보일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삼성은 최형우의 2025시즌 연봉 150%인 15억원을 KIA에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국내 최정상급 우수 선수들, 해남서 경쟁

6~8일 아이치-나고야 AG 우수 1차 국가대표 선발전

‘스포츠 메카’ 해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선수를 가린다.

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6일부터 8일까지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2026년도 우수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과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최된다.

대한우수협회가 주최하고, 전남우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내년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출전 1차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특히 우수 국가대표 선발전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과 시·도협회장이 추천(1인)한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내년 아시안게임 출전권이 걸려 있어 열띤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대회인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수 산타 -60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수(전남도청)가 다시 한번 국가대표 선발과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장



김민수



정민규

민규(전남도청·태극권전능)도 아시안게임 출전 목표를 위해 기량 극대화에 매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우수 국가대표 선발전과 함께 처음으로 우수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우수인들에게 해남을 알리고, 해남군의 자랑인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우수경기장을 설치해 팀에게 개방했고, 재활 트레이너와 우슬트레이닝센터(웨이트트레이닝장)·전천후 육상경기장을 개방해 찻살한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는 5일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 배구단과 진이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고 있는 선수들. 사진제공=KOVO

장정석 무기실격 철회…김종국 50경기 정지

자유계약선수(FA)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이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았다. 구단 후원사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국 전 KIA 감독은 리그 복귀 시 50경기 출장정지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는다.

KBO는 3일 “지난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지난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에 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0월 의식업체 대표 A씨에게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FA 계약을 앞둔 당시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KBO는 형사상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이들이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KBO 상벌위는 “장정석 전 단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KBO가 실제 처분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장정석 전 단장은 KBO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다.

상벌위는 이어 “김종국 전 감독은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리그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연패의 늪’ AI페퍼스, 하락세 딛고 2위 되찾을까

내일 서울서 GS칼텍스 상대 6승 5패 승점 17점 리그 3위 ‘팀내 득점 3위’ 박은서 주목



연패의 늪에 빠진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원정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AI페퍼스는 5일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 배구단과 진이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달 30일 AI페퍼스는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21-25 25-13 19-25 7-15)로 패배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관장전에서도 연달아 패배했던 AI페퍼스는 이날 3연패를 기록, 6승 5패 승점 17점으로 리그 3위로 하락했다.

현재 V리그 여자부는 치열한 순위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승점 28·10승 1패)를 제외하고 현대건설(승점 20점·2위), AI페퍼스, GS칼텍스(승점 16점·4위), 흥국생명(승점 16점·5위)이 좁은 격차로 경쟁 중이다. 6위 정관장과 7위 IBK기업은행 역시 각각 승점 10점으로 중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 1~2경기마다 매번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대혼전 양상이 됐다.

이는 각 팀들이 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물고 물리는 싸움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AI페퍼스는 올 시즌 도로공사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지만, 정관장과 기업은행에는 1·2라운드 대결에서 모두 졌다.

현대건설은 AI페퍼스에게 2전 전패를 당했고, GS칼텍스에게는 1패를 당했다. GS칼텍스 또한 AI페퍼스, 흥국생명, 정관장에게 각각 1패를 기록했다. 흥국생명 역시 AI페퍼스에게 2전 전패로 힘을 쓰지 못

했고, 현대건설·GS칼텍스·정관장에도 발목을 잡았다.

즉 도로공사 이외에는 팀별로 승리를 잡지 못하는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다. 2라운드 초반까지 돌풍을 일으켰던 AI페퍼스는 중반부터 주춤하고 있다. V리그 중원을 지배했던 시마무라의 플레이가 상대 팀들의 눈에 익으면서부터다.

실제 시마무라는 득점과 속공, 이동공격 등 각종 공격 지표에서 리그 상위권에 오르며 맹활약했다. 하지만 상대들이 공격패턴을 읽기 시작하면서 팀은 3연패에 빠졌다. 결국 다시 날개 쪽의 활약이 중요해졌고, 그 중심에는 아웃사이드히터 박은서가 있다.

현재 팀 내 득점 3위(115득점)를 달리고 있는 박은서는 리그 초반 팀 공격의 중심을 맡았다. 외인 조이와 주장 고예림의 부상 공백 기간을 그가 메꾸면서 팀은 상승세를 이뤘을 수 있었다. 강력한 서브와 스윙이 장점인 박은서는 최근 IBK기업은

행전에서 14득점, 한국도로공사전에서 15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시마무라가 집중 견제당하는 흐름에서 박은서가 꾸준히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중원과 날개가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번 경기 상대인 GS칼텍스는 현재 5승 6패 승점 16으로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다. AI페퍼스를 단 1점차로 추격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에게 첫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강하다. 득점과 공격 1위 실바(365득점·공격성공률 45.15%)가 주포로써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유림 또한 속공 2위(성공률 48.15%), 블로킹 7위(세트당 0.605)로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오세연 역시 속공 9위(성공률 37.50%), 블로킹 10위(세트당 0.568)로 힘을 보태는 중이다.

AI페퍼스가 GS칼텍스를 꺾고 리그 2위 자리를 되찾기 위한 승점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